생생 진료실

전통을 잇고, 과학으로 확장하다
초음파와 침술의 융합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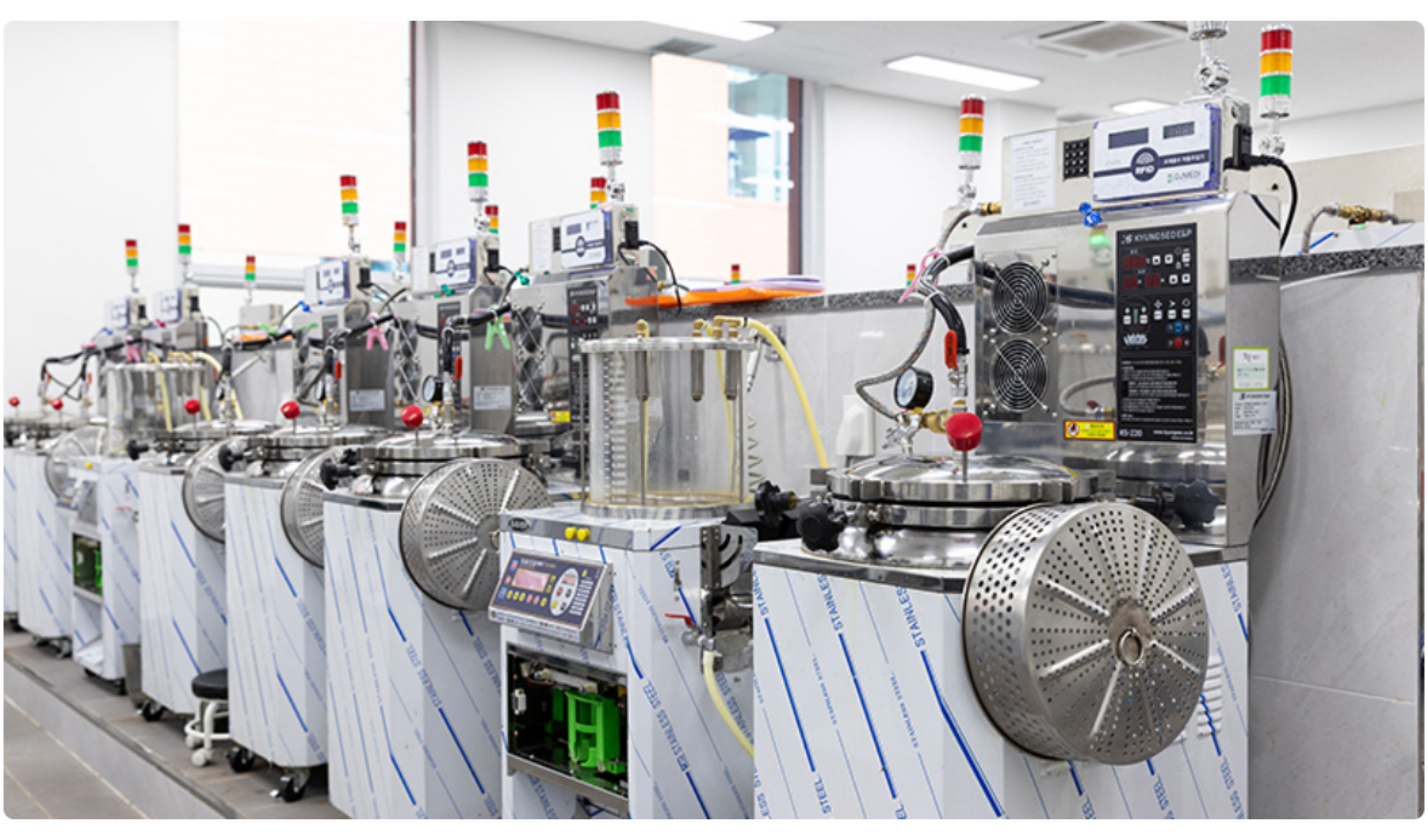
한의약 치료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2024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한·양방 협진 체제를 기반으로 첨단 진료 환경을 갖추며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 탕전 시스템과 초음파 유도 침술이 있다.

한약 조제의 혁신, 스마트 탕전 시스템

과거에는 한의원에 들어서면 진한 한약 냄새가 가장 먼저 맞이했다. 환자들에게 처방된 한약을 한의원 내에서 직접 달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한약 냄새가 나는 한의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한약이 '원외탕전실'이라는 별도의 조제 전문 시설에서 만들어져 한의원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원외탕전실은 현대화된 설비를 갖춘 곳으로, 탕제뿐만 아니라 환(丸)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조제한다. 조제 과정은 엄격한 품질관리 아래 이뤄지며 대부분의 원외탕전실에서는 일부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제조 과정을 자동화했다. 컴퓨터와 연동된 전자저울은 약재의 정확한 중량을 측정하고, 약재별 흡수율과 처방량에 맞는 용수량을 계산한다. 상극 약재나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오복용 방지를 위해 조제된 한약에는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마킹된다. 또한 모든 조제 과정은 전면 개방되어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병변을 직접 보며 침 놓는 시대, 초음파 유도 침술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하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환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한다. 때문에 초음파를 활용한 침술에 대한 한의사들의 연구는 이미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초음파 유도 침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초음파 유도 침술은 한의약의 지혜와 현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탄생한 통증 치료술이다.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병변(病變)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초음파 가이드를 통해 침이나 약침을 시술하기 때문에 통증 부위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양방에서 초음파 유도 주사가 활용되듯이, 한의약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의 경우 초음파를 이용한 침술은 외래 진료에서는 시간상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시술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X-RAY, CT, MRI 등의 촬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방 진료를 먼저 받고 오는 환자가 많아 초음파를 활용한 침술 치료에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이현종 침구의학과 교수는 첨단 의학 기술을 한의약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면서 초음파 유도 침술을 치료에 적용했다. 이현종 교수는 초음파 유도 침술을 단순 침 치료보다는 약침술에서 활용하며, 어깨와 무릎에 주로 적용한다. 현재는 시행 초기여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 개개인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깨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가 초음파 유도 침술로 수술 없이 잘 치료된 사례도 있다.

현대 과학 기술 적극 도입으로 확장하는 한의약

한의약의 임상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현종 교수는 "기능보다 구조에 접근해 진단하는 영역으로 한의학을 보완한다면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며 현대 과학 기술을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초음파뿐 아니라 저선량 x-ray, 혈액 검사 등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의약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 한의약에 기반한 새로운 진료 기술의 도입과 활용, 새 기술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한의약은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하는 이현종 교수(대구한의대한방병원)